Ⅰ. 통상현안정보

▣ 호주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왜 증가하는가?

- 제조업 취약으로 수입증가에 극도로 민감
- 2005년 1월 현재 3개품목 반덤핑 조사중

○ 호주 관세청은 최근 2005년 제5호 덤핑공고를 통해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산 냉장고(냉장식품 진열용 등 일부는 제외)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이로써 2005년 1월 현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산은 9개 품목, 조사가 진행중인 품목은 3개 품목으로 늘어났음.

□ 對韓 반덤핑규제 증가에 대한 대응책

○ 우선 호주의 반덤핑 규제가 증가하는 요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음. 호주는 국민소득은 높지만, 인구 2천만명의 크지 않은 시장이며, 제조업의 GDP기여도가 10% 정도에 그쳐 30%가 넘는 우리나라나, 대만은 물론 선진공업국들(20~30%)과 비교할 수 없이 취약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내수의존율이 84%에 이를 정도로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입품의 가격과 품질조건은 날로 향상되고 있어 호주제조업계의 대외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호주 제조업계는 언제 공장문을 닫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생명연장전략의 하나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음. 호주기업들은 일단 반덤핑 제소를 할 경우, 외국기업들이 귀찮아서도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대응을 해 오더라도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기업의 발목을 붙들어 매어두는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 착안하고 있다는 사실임.

○ 그러면,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첫째, 덤핑을 자행하지 말아야 함. 중국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고가 누적되어 이를 처리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음.
- 둘째, 수출물량이 20%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덤핑마찰을 야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금호타이어의 경우 호주 제조업체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를 연간 수출증가율 20% 수준으로 잡고 수출물량을 자율규제하면서 가격을 높여 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함.
- 셋째,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극 대응함이 요구됨. 호주 제소업체의 경쟁력이 바닥에 닿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이 경우 호주 제조업체가 다수가 아니고 독점기업이라면 이 업체를 M/A하는 작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호주의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수출상대국중 중계무역국가인 홍콩, 싱가폴, 대만, UAE 등을 제외할 경우 일인당 우리상품 수출액이 154달러로 가장 큰 국가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 참고로 호주가 우리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발포성 폴리스티렌(EPS), PVC, 동관, 폴리올(Polyols), 열연형강, 세탁기, HDPE, LLDPE, 열연강판 등 9개 품목에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냉장고, 종이제품(백판지), 건축용 철강파이프 등 3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

(문의처 : 시드니무역관 김은성 eskim@kotra.or.kr)